

## 2011년을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도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큰 대과없이 금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옛 그제 새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낸 것을 보면서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협회는 WCC사업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을 따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협회가 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은 “철새 동시센서스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이고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은 “미래형 생태도시 조성 촉구”와 “섬 연안지역 생태지식 기반 생물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입니다. 그만큼 우리 협회가 내년의 WCC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WCC총회를 성공으로 이끄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장단은 9월에 인천 송도컨벤시아 센터에서 개최된 IUCN의 아시아 자연보전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활동 상황을 홍보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1월에는 환경부 정책실장을 연사로 자연보전 포럼을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명예회장님들, 회원님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정부의 자연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종합학술조사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북 문경의 주흘산 일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흘산 일대의 생태계 조사는 1978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실시함으로써 그동안의 생물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됩니다.

회장단은 정부의 크고 작은 환경의 날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환경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협회를 홍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님들의 회비 납부 실적이 금년에도 저조하여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협회의 발전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관심은 협회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201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더 힘찬 발전을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회장 이학박사 조 덕 현